

통합마음연구를 위한 마음모형*

유권증**

주제분류 인문학, 철학, 마음연구

주요어 마음개념비교사전, 통합마음연구, 마음이해, 통약불가능성, 언어의존성, 마음모형, 통합마음모형, 인문학

요약문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토대기초연구단이 수행하는 마음개념비교사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건인 비교 기준의 하나로서 제작된 통합마음모형과 관련된 학문적 논의 사항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따라서 이 논의는 토대기초연구단이 제작한 통합마음모형의 취지와 목적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통합마음모형의 구성요건을 밝히고 그것의 정당성 여부를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통합마음모형의 구체적 내용을 6가지 범주 및 그에 부속된 하위범주들을 제시하고, 나아가 그것의 의의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었다.

통합마음모형의 취지는 무엇보다도 다양한 마음이해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그들의 동이를 비교할 수 있는 종합적 틀로서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본 연구단의 마음개념비교사전 작업에는 필수적이라는 사실, 그렇지만 본 연구에만 한정하지 않고 향후 어떤 마음에 관한 연구든지 비교의 시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에 있음을 논하였다. 통합마음모형의 구성은 마음 이해들간에 놓여있는 통약불가능성과 언어의존성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것이다. 특히 마음이해의 언어의존성이 인문학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중시하였다. 다양한 언어로 표상된 각 마음이해의 마음관련 개념들을 비교하는 기준으로서 통합마음모형의 6가지 범주가 확정된 것이다. 이 여섯 가지 범주는 첫째 마음의 구조와 작동,

* 이 글은 유권증, 「통합적 마음연구와 마음모형」, 2014년 마음학회 국내학술대회, 2014년 5월 21일에서 발표된 글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 중앙대학교 철학과

둘째 마음의 변화와 성장 및 퇴화, 셋째 마음의 존재와 영역, 넷째 마음의 관찰, 평가 및 진단, 다섯째 마음의 작용과 효과, 여섯째 마음의 은유이다. 그리고 이 여섯째 마음의 은유를 제외하고 범주별로 하위 범주를 구분하여 모두 24개의 세부범주를 두어서 마음개념의 분류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통합마음모형의 의의는 통합모형이 언어의 차이를 다루는 인문학적 방법에 입각하여 마음이해의 다양함을 폭넓게 수용하면서도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구할 수 있다. 동시에 이것은 인류가 개발하고 축적한 마음이해의 다양한 전통들을 융합하여 종합적인 마음에 관한 진실의 구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서론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의 토대기초연구단은 2012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서 “동서양 고전과 현대 과학을 아우르는 마음 비교 용어사전 DB 구축”(이하 “마음개념비교사전”이라 칭함)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사전 제작이 가능한 형태로 DB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 작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동양과 서양 고전들에 나타난 마음이해, 그리고 다양한 현대의 제 학문의 마음에 관한 이해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마음에 관한 용어를 비교하여 서술하는 사전을 제작한다는 점이다. 마음에 관한 다양한 이해들을 전체적으로 비교한다는 점에서 이 토대기초연구는 통합 연구의 성격을 지니며, 이 통합연구의 기초적인 관점의 획득과 방법의 설계를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마음에 관한 이해(이하 “마음이해”로 지칭)란 마음의 전체적인 구조 혹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작용 및 현상 등에 관한 일정한 지식과 자각적 경험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마음이해란 일반인들의 자각적 경험이나 지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마음을 연구하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여주는 체계화된 지식과 성찰적 경험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아울러 마음이해라는 개념에는 마음의 구조와 그 작용들이 두루 포함되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개념을 비롯하여 마음과 관련한 개념군이 필수적으로 포함된다. 그러나 마음이해는 각각의 고유한 언어, 관심, 관점 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입각하여 제 각각의 형태나 체계로 구성된 마음과 관련한 개념들의 연결망을 지니고 있다. 즉 마음이해들은 서로 다른 언어적 용법과 마음에 대한 각각의 관심과 관점에 기초해 있으며, 그에 따라서 각각의 마음이해의 개념군들도 그 연관 형태가 서로 다르다.¹⁾ 따라서 이 이질적인 언어용법, 관심사, 관점들, 및

이형적인 개념들의 연결망들 전체의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마음이해들을 포괄하는 틀을 고안해야 한다. 그 틀은 적어도 마음개념비교사전에 포함되는 마음이해들을 모두 포괄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기준에 의한 각각의 특징들의 비교가 가능해야 한다. 이 포괄적 틀을 통합마음모형이라 부르고, 이에 준해서 재조정된 각각의 마음이해를 마음모형(mind model)이라고 지칭한다.

마음 개념 비교를 왜 하는가? 간략하게 중요 사항만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에 관한 연구는 철학이나 심리학 인지과학 뿐 아니라 사회학, 문학, 예술, 정신의학, 인공지능, 언어학, 생물학, 등등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기도 하며 대부분의 학문에서의 논의에 마음이해는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학문간에는 상호 소통이나 상호 이해가 원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많은 오해가 나타난다. 이를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교를 통한 차이의 인식이 필요하다. 둘째, 상호 이해란 차이의 근원에 위치하는 마음 개념 혹은 마음이해의 맥락의존성²⁾과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³⁾의 이해와 인정까지도

- 1) 비록 영어 혹은 기타 유럽언어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불교 혹은 유교의 마음개념들 자체가 영어나 유럽어 내지 서양철학 내지 과학의 언어들과 확연히 다른 개념들과 그 연결망을 형성했다. 또 현대 미국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의 서양철학계에서도 심리철학의 경우 주로 심신관계를 밝히는 존재론적 논의의 틀이 일반화되었지만, 유학이나 불교쪽 연구자들의 마음에 관한 논의는 그것과는 달리 인간의 변화와 성장 내지 이상의 성취 등을 지향한다고 이해된다. 유권중, 「유교의 마음모형과 마음 원리」, 철학탐구, 35집, 중앙철학연구소, 2013., 장진영, 「불교의 마음이해」, 철학연구 123집, 대한철학회, 2012. 전자는 마음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유교의 마음이해이며, 후자는 불교는 분별심으로부터 벗어남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불교적 마음이해의 주요 목적임을 밝히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연구들이 그러한 점에 대해서 언급한다.
- 2) 맥락의존성이란 일종의 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구성된 것임을 의미하며,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 성격을 지닌다. 이에 대해서는 Jaan Valsiner and Alberto Rosa, Editor's Introduction: Contemporary Social-Cultural Research: Uniting Culture, Society, and Psychology, The Cambridge Handbook of Sociocultural Psychology, edited by Jaan Valsiner, Alberto Rosa, Cambridge

포함한다. 맥락의존성과 통약불가능성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다양한 마음이해의 진리치를 일원화하여 어느 하나의 맥락으로 통합할 수 없다는 관점과 관련된다. 이는 기존의 심리학이든 철학이든 역사-문화적 탈맥락화를 지향하는 방향에서 추구된 것과는 반대의 방향, 즉 맥락을 고려하고 존중하면서 마음에 관한 다양한 이해들을 종합하고 비교하는 시각을 구성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⁴⁾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사항을 이해하고 인정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양자를 넘어서서 마음이해들간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기반을 찾아내고, 그에 입각해서 통합마음모형을 구성하고자 한다. 그 공통의 기반은 뒤에 밝히듯이 생명체로서의 인간의 생물학적 구조와 작용에 있으며, 맥락의존성과 통약불가능성이 발생하게 되는 근거를 각 마음이해의 언어 의존성(Dependence on Language)에서 찾고 이러한 언어적 차원의 소통을 추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이다.⁵⁾ 이런 언어의존성의 이해와 인정이 진정한 비교의 가능

University Press, 2007., pp. 2-10, 사회-문화 심리학의 입장과 정착과정에 대한 설명을 참조할 것.

- 3) 고인석, 「공시적 통약불가능성의 개념과 양상-전문분야간 협력과 관련하여-」, 철학연구 제103집, 대한철학회, 2007.8. 참조. 본 논문의 심사 위원 중 한 분이 통약불가능성이라는 규정은 오류일 수 있으며 마음모형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해가능한 점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분명히 이 문제는 마음연구에서 뿐 아니라 기타 영역, 예를 들면 종교학에서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이 글에서 말하는 통약불가능성은 ‘다양한 마음 이해의 진리치를 일원화하여 어느 하나의 맥락으로 통합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이 경우 이해 불가능을 함께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심사소견대로 이해가능성이 통약불가능성을 그대로 반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즉 이해가능성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인석의 논문의 ‘차용과 협력’장을 참고하기 바람.
- 4) 최상진, 『한국적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 12-13쪽 참조.
- 5) 언어 의존성에 관해서는 Jaan Valsiner and Alberto Rosa, 앞의 글, 8-10쪽 참조. 다만 언어 의존성은 제3장 통합 마음연구의 조건에서 다시 논한다. 한 심사소견은 언어의존성의 의미가 불명료하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언어의 차이가 마음의 차이(즉 마음 작용이나 마음 현상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과 ‘언어의 차이가 마음 이해나 마음 모형의 차이를 낳는다는 것’은 서로 다르다.....언어 의

성을 높이는 것이다.⁶⁾ 셋째, 현재 각 학문이 도달한 마음연구의 수준을 한 수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의 마음연구에 대한 상호 참조가 필요하다. 상호 참조는 자기의 마음이해와 타자의 마음이해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수용과 선택의 가능성을 높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넷째 그것은 각 학문마다 인간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더 진전된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분야별로 마음이해의 진전을 꾀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이해에 진전을 가능하게 하는 학문적 성과의 축적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를 추진하면서 만나는 난관은 여럿이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난관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지금까지 이러한 비교를 전면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추구한 선행연구의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발상을 대단히 기이하게 여긴다는 점이고, 둘째는 현대의 연구 경향은 대부분 거대이론에 대한 거부 증상이 만연해서 이를 접내거나 기피하는 연구자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지금까지의 마음연구는 동양철학의 경우 사상별로 각자의 맥락에 입각하거나 그 맥락에 독특한 마음 현상과 효과에 관한 이해의 서술이 대세이고,⁷⁾ 서양철학의 경우도 역시 고대로부터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에도 형이상학, 윤리, 문화, 이데올로기 등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언어의 의미를 너무 협소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언어는 그러한 의미들을 문자나 문장의 구조에 담아내어 인간의 마음의 규정에 관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언어와 마음 이해간의 관계는 사실은 상호규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되, 다만 그러한 상호규정의 내용과 방식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은 언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연구의 입장이다.

- 6) 비교의 이유와 방법에 관해서는 유권중, 「비교인문학의 방법과 방향-마음학을 통한 학제간 연구」, 철학탐구 제27집, 중앙철학연구소, 2010., 8-16쪽.
- 7)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불교편』, 2013년, 및 『마음과 철학: 유교편』, 2013년의 다양한 주제의 논의들이 그러한 것이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동양철학의 전통에서 형성된 마음이해에 관한 논의들이 그러한 방식을 취한다.

다양한 마음이해가 정착되었고 이에 대한 탐구도 동양철학에서의 논의와 크게 다를 것이 없으며,⁸⁾ 현대 철학에 관한 한국 학계에서의 논의는 분석철학의 전통에 입각한 심리철학 중심의 논의에 집중되거나 혹은 현상학적 마음이해에 관한 논의들이 주도하는 편이고, 비교철학의 경우에는 영미철학에서 주요 이슈가 되는 심신문제를 유교나 불교에서도 찾아본다든가 하는 연구들에 머물고 있는 점이 일반적 현상으로 관찰된다.⁹⁾ 이러한 연구들은 각각의 맥락에서 이루어진 마음이해를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데는 많은 도움을 주지만, 그것들 사이의 차이를 파악하는 비교의 작업은 독자의 추측과 상상에 맡겨놓고 있으며, 마음 이해간 언어의존성이나 통약불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은 듯하다. 그 외에도 심리학, 인지과학, 생물학 등에서도 인간의 마음이나 마음의 일부 기능 작용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주로 뇌과학/신경과학의 유물론적 접근법을 가장 유력한 것으로 간주하는 과학주의의 태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들 상호간 혹은 이들과 철학과의 상호 협력적인 연구의 사례는 드문 편이고, 이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간의 차이나 연관성을 찾는 연구는 더더욱 드물다. 또 다양한 마음이해들 전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서 실질적인 비교를 취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본 연구단이 다루고자 하는 마음이해의 수가 수 십 개나 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비록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비교의 기준 설정과 포괄적 내지 통합적 틀을 만드는 것은 본 연구를 위해서 중요하고, 나아가서 현재의 마음과 관련된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마음이해의 전통이 지닌 특장을 제대로 인지하

8)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엮음, 『마음과 철학: 서양편-상』 2012, 『마음과 철학: 서양편-하』 2012 등이 최근의 그러한 예가 되는 저술이다.

9) 이러한 방식의 탐구의 예로서, 임현규, 『유가의 심성론과 현대의 심리철학』, 철학과 현실사, 2001.을 들 수 있다.

기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고민과 관련하여서 본 연구단이 취한 방법과 그 내용을 소개하고, 학제간 연구로서의 마음학의 논의를 진작시키고자 한다.

2. 통합 마음연구란?

통합 마음연구는 다양한 마음이해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어느 하나의 마음 관련 개념이나 이론에 한정하여 비교하는 부분적 비교가 아니라 마음이해별 각각의 전체적 구조와 개념 연관의 유형 등 전체를 하나의 틀 속에 통합하여 비교하는 연구를 가리킨다.¹⁰⁾ 이 때문에 본 연구에 비해서 본다면 기존의 비교연구는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강조해야 할 것은 이 통합이 다양한 마음이해들을 어느 단일한 기준 하에 모든 차이를 없애버리거나 각 마음이해의 다양성을 사상함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다양한 마음이해들, 특히 전혀 비교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다양한 유형의 마음이해들 전체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또 그들의 비교를 부분적으로 개념 대 개념, 혹은 이론 대 이론의 차원에서만 비교하지 않고 각 마음이해의 개념들의 연결망의 구조와 뿌리은유같이 근원적 사유에 대한 것까지도 비교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통합이라고 부른 것이다. 즉 통합마음연구는 어디까지나 총체적 비교를 통해서 다양

10) 한국이든 서구든 마음을 대상으로 삼는 연구들은 비교적 오랜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면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라든가 John Searl의 *Mind: A Brief Introduction*과 같은 저술들이 그러한 전통의 앞과 뒤에 서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어디까지나 언어적 맥락에 따라서 혹은 문화적 맥락 내지 사상 종교적 맥락에 따라서 형성된 다양한 마음이해의 종합과 그들의 비교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사상 내지 종교라는 한정된 분야의 마음이해를 다루는 연구들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마음개념비교사전의 연구작업은 이들과는 근본적 틀과 지향성에서 차이가 있다.

한 마음이해간의 차이를 더 적절하게 파악하기 위한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각각의 마음이해가 지닌 특징을 드러내는 결과를 기대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학문적으로 의미있는 비교를 통한 상호 차이의 이해와 인정의 결과를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류 역사 속에 형성된 문화적 혹은 학문적 맥락별 마음이해들을 하나의 좌표에 엮어놓고 각각의 마음이해가 차지하는 위상을 보여주려는 목적도 지닌다.

이 점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본 연구단이 추진해온 작업의 내용과 관련하여 설명해보도록 한다. 본 연구단이 마음개념 비교를 하면서 그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동양의 전통 사상인 유교와 불교, 그리고 도가 도교, 서양의 고대 철학, 중세 철학, 근대철학, 현대의 현상학, 심리철학, 심리학 제분야, 인지과학, 뇌과학, 신경과학, 정신의학 제분야, 및 문학(국문학, 외국문학) 분야 등이다. 각각의 분야에서도 더 분류를 하여야만 더 적절한 비교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각 분야의 중분류와 세분류 수준의 하위구분을 추가하였다. 중분류 수준은 예를 들면 동양의 유교에서는 선진유가, 성리학, 양명학 등의 분류수준을 말하고, 세분류란 선진유가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등의 마음이해로 더 세분되는 수준을 말한다. 현재 본 연구단이 중분류 수준에서 확보한 마음이해의 유형별 숫자는 70여개이다. 현재는 이 수준에서 핵심표제어를 선정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모형간의 공통적인 표제어에 대한 비교서술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단의 최종 결과물로 예상하는 것은 마음개념을 비교 서술한 사전 DB인데 거기에는 마음모형에 관한 서술과 마음모형별 주요 이슈의 서술이 포함된다. 마음모형이란 마음이해의 구조와 내용을 비교의 단위로 삼기 위해서 마음이해를 단위화한 것이다. 즉 마음모형이란 각 마음이해가 제시하는 나름의 관련 개념들이나 마음이해의 내용들을 타 마음이해의 그것들과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전체적인 골자를 드러내기 위한 단위

를 말하며, 각 마음모형의 형태는 개념들의 성격을 구분하고 그들의 분포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획득된다. 마음모형의 형태와 성격을 서술하고 아울러 모형별 이슈를 서술해야만 마음모형별 마음개념의 비교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모형의 서술로써 각 마음이해의 특징이 상호비교가 가능한 방식으로 고찰될 것이고, 각 모형별 이슈는 사실 마음모형별 중요 관심사를 드러내주는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비교의 작업이 효과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형이란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단위가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객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관건이 되는 것이다.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원 각자가 자신이 담당하는 분야의 마음모형을 제작하기 위하여 마음이해별 주요 내용을 도표화하거나 도상화하여 보여주는 방법을 취하였지만, 역시 그것은 각각의 특징을 각각의 입장이나 맥락에서 제시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그러한 대비는 양자간 혹은 다자간의 차이를 설명하기가 무척 곤란하다는 점이 문제이다. 그리고 본 연구단이 다루는 마음이해들 전체를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그로써 마련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이 다양한 마음이해들 전체를 하나의 틀에서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일종의 통합적 틀 내지 비교의 기준이다. 본 연구는 그것을 통합마음모형이라고 부르고 각 마음모형의 종합적 형태로 간주하였다. 통합마음모형은 전례가 없는 것이지만, 본 연구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이라는 연구원 공동의 인식이 있었다. 따라서 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며, 그에 관한 논의가 사실 본 논문의 핵심적 주제이자 내용이다.

본 연구단이 추구한 통합마음모형의 핵심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통합마음모형은 각 마음모형들을 종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종합한다는 의미는 각 마음이해가 품고 있는 개념망들을 종합한다는 것이다. 이 때 종합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각 마음이해의 개념 연결망의 분포를

종합하는 것이고, 그로써 두 가지 새로운 내용을 새롭게 얻게 된다. 이 두 가지 새로운 내용이 마음이해의 비교연구를 진전시킬 것이다. 첫째는 마음모형들 각각의 마음 개념들의 분포에 대한 종합적 이해이다. 즉 위에 거론한 학문 영역들, 중분류 수준의 마음모형들 전체의 개념들이 포진한 범위가 그로써 명확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마음모형들의 개념들 전체가 공동으로 형성하는 마음이해의 외연이 파악된다. 둘째는 앞의 방법에 따라 종합된 마음이해의 개념들을 유사한 속성에 따라 구분 분류하는 범주가 생성된다. 각 마음모형의 개념들은 마음모형별 독자적 개념형성의 과정을 거쳐서 정착된 것으로 보이며, 그 때문에 마음모형별로 보여주는 개념군은 개념의 속성과 개념들간의 연관관계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다른 모형의 각각 다른 개념들이라 하더라도 의미상 상호 소통가능한 것 혹은 번역가능한 것들이 있으며, 그 경우 모형별 개념들간 유사성을 파악하여 유사한 개념들끼리 하나의 범주로 묶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모두 6개의 대범주를 생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명시해야 할 점은 각 마음모형이나 통합마음모형은 연구진이 효과적인 비교작업을 위하여 가설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즉 이들은 어디까지나 비교 작업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작업가설이다. 따라서 통합마음모형의 성과는 그로 인해서 비교 작업이 효과적으로 성취되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그러나 또한 비록 가설적이고 일정한 목적에 한정된 비교연구에 맞추어 제작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양한 마음이해들간의 차이를 비교하고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마음 연구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되돌이켜 보면, 통합 마음연구란 바로 통합 마음모형의 틀을 갖추고 그것을 통해서 각 하위 모형의 마음이해의 구조와 내용의 특징을 견주어 보는 연구 방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3. 통합 마음연구의 조건

그렇다면 통합마음모형의 설계는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가? 2년차 연구 전반기(2013년 가을부터 겨울까지)동안 이에 관한 많은 논의를 하였고,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통합 마음모형을 설계하기에 이르렀다. 먼저 이 모형을 설계할 때에 고려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모형의 구조를 설명하도록 한다.

비교의 작업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각의 마음모형이 확보하고 있는 개념들이 제각각의 맥락에 의해서 생성되고 정착되었고, 아울러 그 개념들의 연결망 역시 일정한 유형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그 때문에 同異를 비교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을 형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바로 이것이 각각의 마음모형은 맥락에 의존한다고 보는 이유이고, 나아가서 마음모형간의 통약불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통약불가능성과 맥락의존성을 넘어서서 각 마음모형들을 함께 비교하는 틀을 구성하는 것이 통합 마음 연구의 핵심 사안이다. 마음모형을 만들어서 비교를 하더라도 이들을 두루 포함하여서 각각의 위상을 함께 동시에 상대화시켜서 보여줄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 이 작업은 개별 마음모형을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서 통합 마음모형을 제작하는 순서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개별적 마음이해로부터 개념군들을 모아서 통합하여 개념들의 전체적 외연과 범주를 구성함으로써 통합 마음모형을 구성하고 그로써 개별 마음모형도 함께 확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각 분야의 마음이해들의 개념의 연결망들을 관찰하고 각 마음이해의 핵심 표제어를 선정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통합 마음모형 설계를 위한 감각도 조금씩 열리게 되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일단 통합 마음모형의 가능근거를 논의하도록 한다.

통합 마음모형이 가능하려면 일단 각 마음이해의 공통분모가 되는 것을 구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비교든지 비교되는 쌍방 혹은 다자가 공유하는 기준이 있어야만 비교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마음이해들을 하나의 틀에 통합하여서 상호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의 근거는 무엇일까?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중요하게 관찰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서구철학이든 동양철학이든 또 심리학, 인지과학, 정신의학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각각의 마음이해는 self-referential하다는 점이다. self-referential하다는 것은 자기지시적 혹은 자기준거적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는 진실의 근거가 외부의 타자에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마음이해에 적용하면 각 마음이해는 각자의 고유한 언어(개념)를 사용하여 마음을 관찰하고 판단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현대의 뇌과학자가 (누구의 뇌든) 뇌를 관찰하고 그것에 대한 조작적 실험을 행하는 과정에서 뇌과학의 언어로써 뇌의 다양한 작용들을 관찰하고 음미하듯이, 유학의 개념군을 사용하는 사람은 유학의 개념들에 의하여 마음의 작용을 관찰하고 음미하는 일을 의미한다. 따라서 뇌과학자에게는 뇌과학의 언어로써 관찰된 내용이 실재시되고, 반면에 유학자에게는 유학적 언어로 관찰된 내용이 실재시된다. 이 때 뇌과학의 용어와 유학의 용어 사이에는 어느 것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옳다는 판단의 기준이 부재한다. 다만 각각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각각의 마음이해를 실재시하고 정형화하는 것일 뿐이다.¹¹⁾ 마음연구는 이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그리고 이에 분명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마음이해란 마음이해의 도구에 해당하는 마음개념군에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 이것이 곧 자기지시적이고 자기준거

11) 사실 이는 마음 연구에만 국한되는 일은 아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인류가 개발해 온 모든 학문의 지식들과 진실들이 그러한 것이다. 하인즈 폰 피르스터·베른하르트 피르크센 지음, 백성만 옮김, 『진리는 거짓말쟁이의 발명품이다: 회의론자들을 위한 대답』, 늘봄, 2009., 57-61쪽.

적임을 잘 보여준다. 그러므로 어떠한 마음개념군, 즉 마음모형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상이한 마음이해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실제시된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각각의 자기준거적 마음이해들의 통약불가능성을 넘어서서 가능한 통합의 틀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이것을 찾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마음이해의 상위한 유형들을 검토하였다. 마음이해의 상위한 유형들 사이에서 최근 많은 학자들이 의존하거나 반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뇌과학적 마음이해일 것이다. 뇌과학적 마음이해는 뇌는 마음이란 활동의 근원이 되는 물질적 실체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심리철학의 물리주의적 패러다임의 강력한 증거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내외의 철학, 심리학, 인지과학, 분야의 연구자들 대부분이 공동으로 의존하는 발상법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뇌를 궁극적 환원의 실체로 채택하는 물리주의적 관점 내지 마음의 원천이 뇌라고 간주하는 뇌과학적 관점은 많은 반론에 직면해 있다.

그 반론은 다양한 관점에 의하여 진행되고 있다. 즉 모든 마음 작용과 기능의 원인을 뇌로 환원하는 관점을 거부하는 생물학적 혹은 생태학적 관점은 인지작용을 하는 뇌 역시 생명의 흐름 혹은 생명의 체계가 형성하는 장에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며, 뇌는 장부를 비롯하여 온몸의 감각운동체계와 연동해서 이루어지는 생명 작용의 순환체계의 일부라고 간주한다.¹²⁾ 이 관점에 의할 경우 뇌라는 물질을 마음 작용의 근원으로 간주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며 오히려 마음 작용은 생태학적 순환체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견해가 타당하다. 이러한 견해의 연장선상에 있는 최근의 인지생물학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한 산티아고 학파의 바렐라와 그의 동료인 톱슨은 마음 연구의 틀을 존재론적 패러다임으로부터 일종의 생명론적 패러다임으로 바꾸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¹³⁾

12) 이와 관련하여 알바 노에 지음 김미선 옮김, 『뇌과학의 함정: 인간에 관한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하여』, 갤리온, 2009, 제2장 제3장 참조.

바렐라에 따르면 마음의 원인을 존재론적 패러다임에 의존해서 물질 혹은 비물질로 환원하는 연구는 더 이상 진전된 논의를 낳기 어렵다.¹⁴⁾ 그에 의하면 오히려 뇌라는 것도 생명체계의 한 부분이므로, 인간의 마음이 생성되는 것은 생명체로서의 인간에게 독특한 현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뇌라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성된다고 하는 견해는 수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뇌의 가소성에 대한 실험 결과도 역시 마음이해에서 뇌는 환원의 종착점이 될 수 없다는 고찰이라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다.¹⁵⁾ 이러한 일련의 비물리주의적이고 비환원적 마음이해들은 뇌를 포함하여 생명체계 전체를 마음 활동의 근원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뇌과학의 관점 내지 존재론적(물리주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환원론적 방법을 본 통합마음연구의 공통분모로서 채택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생명을 근원으로 보는 관점이나 생태계적 사고를 통해서 마음을 보는 관점은 인류가 다양하게 개발해온 마음이해의 내용을 하나의 통합 비교의 틀을 구성해서 보도록 길을 열어준다. 물론 바렐라나 톰슨의 관점을 그대로 통합마음모형에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관점이 비록 불교나 유교에 적합한 면이 비교적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교 마음모형이나 유교 마음모형 그리고 기타 마음모형에 두루 공통적인 것은 그보다 더 기초적 수준에서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 기초적 수준이란 마음작용과 현상이 출현하는 생물학적 기반이 되는 생명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느 마음이해든지 생명을 지닌 인간이 자각적으로 경험하는 내용이 마음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13) 이에 대해서 유권중, 「노하우로서의 윤리」, 東洋哲學 제34집, 한국동양철학회, 618-622쪽 참조.

14) 유권중, 위의 논문, 같은 곳.

15) 샤론 베글리 지음, 이성동 김중욱 옮김, 『달라이 라마, 마음이 뇌에게 묻다』, 북섬, 2008., 182-222쪽. 이 글에서 뇌와 마음 사이의 상향적 인과만을 인정하는 신경과학자들과 달리 하향적 인과 즉 명상 및 마음 수행에 의하여 뇌의 가소성을 인정하고 그것을 입증하는 사례들이 언급된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마음이해란 다른 아닌 인간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해일 수밖에 없다. 그 이해는 언어를 통해서 기호화되고 표현되고 소통된다. 뇌를 포함한 장기와 온몸의 감각운동체계들의 암묵적 차원의 활동들이 인간의 의식에 의하여 포착되는 과정에서 언어가 관여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해가 형성된다. 즉 우리의 의식적 작용이 그 활동들을 단위화하고 분절하여 명명함으로써 의미의 단위가 생성되는 것인데, 이 때 그러한 단위의 분절 및 의미의 할당은 바로 언어적 작용인 것이다.¹⁶⁾ 달리 말하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뇌를 비롯한 생명 활동을 단위화하여 명명하고 그들간의 연관을 지어주는 것이 가능하며, 각각의 마음이해가 형성되는 것도 바로 언어 때문이다. 따라서 마음이해의 근본에는 생명 활동의 자각적 관찰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것을 포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는 당사자가 획득한 언어적 장치가 경험을 인도하고 규정한다. 이를 언어적 개입이라고 한다면, 언어적 개입은 마음이해의 가장 근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일차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사자적 방법이든 관찰자적 방법이든 그 관찰자가 의존하는 언어가 관찰을 지배하고 있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16) 마음의 다양한 작용과 현상에 대해서 언어가 개입함으로써 마음이해가 시작된다. 이는 본 연구의 견해와 달리 심리철학에서는 감각질(qualia)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혹은 차머스의 이른바 내용에 관한 어려운 문제(hard problem of content)에 관하여 감각운동 작용으로부터 마음에 관한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이에 대한 논의는 Daniel Hutto and Erik Myin, *Radicalizing Enactivism: Basic Mind without Content*, Preface 참조)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렐라는 신경현상학(neurophenomenology)이라는 방법론을 제시함으로써 접근하려고 한다.(유권중, 앞의 논문, 619쪽) 이 논의들은 일종의 뇌작용(혹은 신경작용)과 우리의 내면에 형성되는 마음에 관한 지식 사이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설명적 간극(explanatory gap)에 직면하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에 해당한다. 이것은 존재론적 패러다임에 입각해서 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임에 틀림없으나, 이에 대한 논의는 본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비록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각 마음이해들이 포착하고 설명하는 마음의 내용들은 모두 언어적 지식이라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삼고 본 논의를 지속한다.

이렇게 언어로 인하여 마음이해가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은 일종의 생명과 그 생명의 작용은 어느 인종이든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언어가 서로 다른 마음이해로 이끈다는 가정을 하도록 해준다. 각각의 언어가 서로 다른 마음이해로 이끌었다는 관점은 최근 인지언어학 분야에서 정착된 메타포가 인식의 방향과 내용을 설정한다는 이론이 좋은 근거가 될 것이다. 인지언어학의 관점에 의하면 메타포는 세상을 대하고 인지하는 기본적 틀이자 사물과 현상을 이해하는 발상법의 원천이다.¹⁷⁾ 이러한 메타포의 역할은 일상생활이든 전문적 학술행위이든 관여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인지작용의 근거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며, 그것은 마음이해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상과 같은 추론과 학계의 논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명제를 구성할 수 있다. 즉 마음이해는 생명의 활동으로서의 누구나 내면적으로 경험하는 마음 작용에 대한 언어적 표현이다. 따라서 누군가 행하는 마음이해가 종교쪽에서 이루어지든 아니면 문학쪽 혹은 과학쪽에서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그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생명을 영위하면서 진행되는 마음의 작용과 현상을 자신의 언어적 장치로써 포착하여 언술한 것이다. 자신의 언어란 자신이 속한 문화전통에서 습득한 언어일 수 있고, 또 전문가들의 경우는 각자의 문화전통에서 습득한 언어와 특수한 학습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획득한 전문 용어들의 복합체가 될 것이다.¹⁸⁾ 이것이 바로 마음이해의 언어의존성의 핵심적 내용인데, 달리 표현하면 마음이해 각각은 그 언어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다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언어에 의존되

17)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the Western Thought*, Basic Books, 1999., pp.45-59.

18) Jaan Valsiner and Alberto Rosa의 앞의 글(8-9쪽)에서 지적하듯이 20세기 들어 와서 언어학의 발달, 즉 소쉬르의 구조주의적 언어학과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게임이론이 보여주듯이 언어의 역할은 기본적인 것 뿐 아니라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동일한 생명활동의 구조를 지닌 인간사이에 마음이해상의 분기를 조래하는 원인적 구조로 간주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점이 본 연구가 주목하는 점이고 의의를 지니게 되는 점이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단이 추구하는 통합모형을 만들기 위한 기반은 다음의 두 가지 접근방법으로써 구한다. 첫째는 모든 마음이해는 공동의 생물학적 기반 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의존성에 의하여 분기되어 정착된 상위한 마음이해의 상호 비교가 가능한 틀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후자의 작업 때문에 마음개념비교 연구는 인문학적 접근법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작업이 된다. 즉 상위한 마음이해가 뇌나 모종의 물질적 실체에 관한 상위한 관찰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상위한 개념과 개념들의 연결망에 의존되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상위한 언어적 구성물들간의 상호비교를 통한 상호간의 차이의 이해와 인정의 길을 찾고자 한다. 언어적 구성물의 차이를 밝혀야 한다는 점이 바로 인문학적 접근법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관심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생물학적으로 거의 동류의 생명을 영위하면서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마음이해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차이의 이유가 다름 아닌 언어이고, 그 언어는 마음이해를 각각 다르게 인도하는 작용을 한다. 각각의 마음을 통찰하고 음미하는 주체는 마음이겠지만, 그 통찰과 음미의 틀과 수단으로서 언어는 마음에게 일정한 방식으로 자신을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어로부터 마음 경험 구조와 방식의 유형들을 관찰할 수 있으며, 각 마음모형에서 관찰되는 유형들을 구분하고 공통성과 유사성의 원칙에 따라 구분함으로써 공동의 범주들을 만들 수 있다. 그 범주들으로써 마음 경험 구조들간의 차이에 대한 객관적 비교가 가능한 것이다.

마음 경험의 틀로서 언어는 각 문화전통별로 고대와 현대 사이에 많은 변천이 있었고, 또 현대의 학문 사이에도 그 차이는 많이 벌어졌다. 따라

서 생명활동이라는 공동의 기반으로부터 각각의 경험구조로서 언어를 통과하면서 마음이해가 상위하게 분기되는 이치를 간단하게 나무로 은유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¹⁹⁾

METAPHOR OF TR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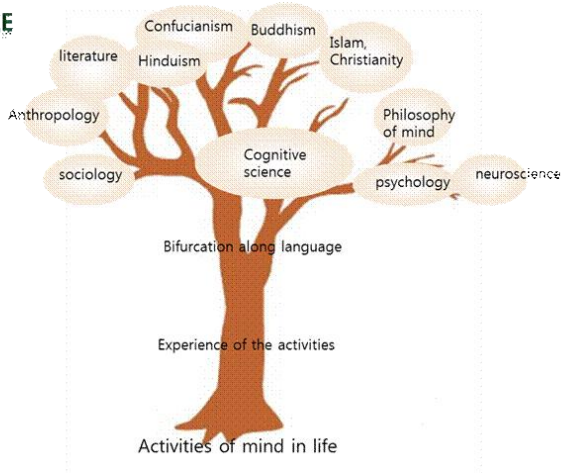


그림 1. 마음이해의 분기에 관한 나무의 은유

이 그림이 시사하는 점은 바로 생명활동에 대한 유사한 경험들이 언어에 의하여 각각 다른 마음이해로 분기되어 간다는 점이다. 이러한 분기의 사정에 대한 해명은 과학보다는 인문학의 몫임을 본 연구가 중시하는 점이다. 분기의 사정이란 생명활동에 대한 경험을 인지하는 단계의 시점에서 그 경험을 보는 틀, 경험되는 생명활동 혹은 마음작용의 흐름과 영역에 대한 구분, 그리고 구분에 따른 의미의 할당 등을 가리킨다. 이것을 인문학의 과제로 보는 이유는 분기가 언어에 의해서 표출되었거나 표출

19) 이 그림은, Kwon Jong Yoo, The Geography of Asian Mind and Comparative Studies on Mind, presentation at the 4th ICCSM, organized by the Society of Mind Studies, Nov. 1-2, 2013.에서 가져온 것.

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언어가 생성하고 규정하는 의미의 세계를 다루는 방법은 과학에서는 생소한 것이고 오히려 인문학이 친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이 바로 본 연구단이 추진하는 연구가 인문학적 토대기 초연구가 되는 이유이다. 아울러 인문학 뿐 아니라 기타 영역의 학문에서 마음에 관한 연구를 행할 때에 자신의 언어에 관해서 돌이켜 보아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다.

4. 통합마음연구를 위한 마음모형

통합마음연구는 왜 필요한가? 현대의 주도적인 학문들인 심리학이나 심리철학, 혹은 인지과학의 논의 구도에 종속되거나 가려져 망각되거나 경시되었던 각 문화 전통이나 학문의 고유하고 독자적인 마음이해에 대한 적절한 재인식과 재평가에 도달하려는 것, 나아가 마음이해의 범위와 외연에 관한 인류사적 지평을 확보하고 그로써 마음이해에 관한 일반적 관점 혹은 범주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중요한 취지이다.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의미는 다양한 마음이해들을 두루 포괄하면서도 각각의 의의와 가치를 균형을 갖추어 평가할 수 있음을 가리킨다. 즉 일반적이란 마음에 관한 진리의 다원성을 관찰하고 인정하는 틀로서의 유용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그로써 특히 한국의 학문적 전통으로서 유교와 불교가 구축해온 인간의 마음에 관한 독자적이고 심오한 마음이해의 재인식과 재평가 내지 현대적 응용의 문호가 더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합마음모형은 이러한 일반적 관점 혹은 범주의 한 형태가 될 것이다.

통합마음모형을 구성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할 조건은 진리의 다원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이들의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범주의 설정이다. 통합마음모형이 각각 다른 진실의 내용과 체계를 지닌 마음모형들의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각각의 마음모형을 두루 포괄하는 마음모형들의 종합적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합마음모형이 담아야 할 내용은 각 마음모형의 마음 관련 개념들을 종합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합마음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질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어떻게 진리의 다원성을 동시에 보여줄 것인가?
- 둘째, 어떻게 상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 셋째, 어떻게 각 마음모형의 개념망을 두루 반영할 것인가?

첫째 질문에서의 진리의 다원성이란 마음이해에 관하여 어느 마음이해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어떤 마음이해든지 그 마음이해는 자기지시적이다. 그러므로 한 언어에 의하여 형성되고 정착된 마음이해는 그 언어적 맥락에 한정하여 진실로서 인정된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되는 진실은 언어의 수만큼 혹은 학문 분야의 종류만큼 다양할 수밖에 없다. 둘째의 상호 비교란 이러한 다원적인 진실들이 지니는 진리의 구조와 진리치를 동시에 견주어보는 작업을 뜻한다. 즉 서로 다른 두 가지 모형의 맞비교를 포함해서 다자간 비교도 가능한 것이 상호 비교이다. 셋째 질문은 사실 위의 두 질문과 중복되는 것일 수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은 위 두 질문에 대한 답을 구체화할 때에 필수적 사항이기 때문이다. 즉 위 두 질문에 대한 답의 구체적 내용은 바로 비교의 단위가 되는 개념들의 확보에서 판가름 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단의 작업은 위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서 위에서 언급해온 통합마음모형을 추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단이 고안한 것은 각 마음모형들이 보여주는 마음 개념들의 분포와 상호 연결망을 여섯 개의 커다란 범주들로 나누어 유사한 개념들을 각 범주에 소속시키는 방법이다. 여섯

범주의 설정은 마음모형별로 개념의 설정이나 그들의 연결 형태나 내용에는 차이가 있더라도 마음을 이해하는 개념들의 속성은 여섯 가지 속성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범주에는 하위 범주가 모두 24개로 구분되고, 또 일부 하위 범주에서는 5개의 더 세분된 범주로 구분된다. 본 연구단이 사용하는 분류표²⁰⁾를 여기에 올려놓도록 한다. 이 분류표는 필자의 제안에 의하여 공동연구원들이 함께 검토하여 수정 보완한 내용이며, 이에 따라서 현재 마음모형별로 해당 개념들을 추출하고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분류의 방식을 간단하게 해설하도록 한다.

표 1의 <마음 개념들의 영역과 위상>이 바로 범주에 해당한다. 좌측 열의 번호를 붙인 것이 대범주에 해당하고, 그 우측의 항목들은 하위 범주에 해당한다. 1번 ‘마음의 구조와 작동’ 대범주에는 선형적 토대와 작용적 기제의 하위 범주를 설정하고, 또 후자에는 다시 감수, 동기, 산출, 판단, 표현의 다섯 세부 범주를 두었다. 그 밖의 대범주는 대범주와 하위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마음의 구조와 작동에 관한 개념망이 어느 마음모형이든 발달하였고, 세부적 분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아울러 표 우측의 <관련 표제어>는 이러한 분류가 실제로 적용되는 방식을 예시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 작업에는 텍스트의 맥락에 따라서 분류 소속을 여러 범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많으며 혹은 분류자의 관점에 의하여 다르게 분류될 소지도 다분하다. 실제로 마음개념을 분류하면서 각 마음모형의 개념연결망의 맥락에 따라서 위에 설정한 표제어 영역과는 달리 분류하는 예도 발생한다. 그렇지만 어떻게 이를 통해서 의미있는 분포 유형이 관찰되는 것이다.

<마음 개념 분류 범주>를 고안하게 된 배경에는 근본적으로 마음을 이해하는 다양한 전통과 학문분야를 섭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고가 작용했다. 다양한 전통과 학문분야의 개념들을 검토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20) 유권중, 「통합적 마음연구와 마음모형」, 2014년 마음학회 국내학술대회 발표문, 2014년 5월 21일.

표 1. 마음 개념 분류 범주 표

마음 개념들의 영역과 위상		관련 표제어의 예
1. 마음의 구조와 작동	선형적 토대 (마음 작동의 바탕이 되는 것들을 가리키는 개념들)	성(性), 정(精), 본성, 본능, 몸, 뇌/신경계, 뉴런, 무의식, 직관형식, 오성범주, 아뢰야식, 종자식, 영(靈), 의식(Consciousness)
	작용적 기제 (마음의 작동과정에 대한 개념들)	감각자료(sense data), 감각, 지각, 감성, 느낌, 경험 동기, 감정/정서 (기쁨, 슬픔, 분노, 흥분, 사랑, 미움, 즐거움, 고통, 그리움, 설렘, 흥분, 안타까움, 공포/두려움, 놀람, 질투/시기), 정념, 충동, 욕구/욕망, 기분, 태도, 의지, 자발성, 용기, 주의, 기개, 가치
	산출 (감수와 동기에서 판단으로 이어지는 중간 과정들)	개념, 기억, 생각/사고, 해석, 이해, 상상, 연상, 논리, 추론, 헤아림, 추측, 직관, 기대, 희망, 절망, 격정/근심
	판단 (구분과 결단)	판단, 통찰, 인식, 결심/결단, 결정, 믿음/신념, 신앙
	표현 (판단 내용을 밖으로 드러냄)	표현, 언어, 소통, 행동, 반응

2. 마음의 변화와 성장 및 퇴화	보존 (마음을 일정하게 유지함)	존심(存心), 명심, 경건, 아파테이아(apatheia), 아타락시아(ataraxia)
	양성 (마음의 성장)	양성, 훈련, 교육, 학습
	성찰 (마음의 작용을 돌아보고 잘잘못을 판단함)	성찰, 반성, 후회, 부끄러움/수치
	교정 (마음의 비정상적 상태를 바로잡음)	교정, 절제, 인내
	체화 (마음의 투명한 작동방식이 몸에 뱀)	체화, 습관, 인격, 성격, 인성
	피드백 루프 (마음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자기지지적 작용과 원리)	자신감, 좌절감
	몸	몸, 생명, 죽음
	정신	마음, 정신, 영혼
	사회와 문화	사회, 문화
	자연	자연, 하늘(天), 우주
3. 마음의 존재와 영역	타인	타인/타자
	초월	브라흐만, 성령, 천리, 태극

4. 마음의 관찰, 평가, 진단	도덕성	덕徳, 부덕, 선, 악, 양심, 책임감, 죄의식, 진심/진실성, 기만거짓말, 실천이성
	합리성	합리, 지식, 무지, 지성, 오성, 이성, 논리, 설득, 부조리, 일관성, 정합성
	賢愚	지혜, 어리석음
	정상과 이상	건강, 이상, 평정, 고요, 불안, 무심, 집착, 우울, 율화, 탐욕
	질병	질병, 중독, 치료/치유, 강박
	조화와 불화 (마음 요소들의 조화, 인행의 조화, 타인과의 조화 등)	신뢰, 불신, 공감, 행복, 불행, 오해, 우월감, 열등감
	감동	감동, 감격
5. 마음의 작용과 효과	연대	연대, 이기심, 이타심, 인정, 단합, 이태올로기
	자각	자각, 자아/자기, 타인/타자, 자기의식, 깨달음, 정체성, 자부심
	사회변화	공분, 시대정신
6. 마음의 은유	(마음의 원초적 이해를 가능케 하는 뿌리 은유들)	心(심장->마음) soul(->) spirit(->) breath(->)

	<p>(*분야별 뿌리은유가 심리학적 은유의 4대 범주에 포함되면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별도 표기 요망)</p>	<p>백지 (tabula rasa; Locke의 마음비유) 심리학적 은유의 4대 범주 (마음 작용을 생물 활동에 비유한) 생물 은유 (마음 작용을 물리적 신경 작용에 비유한) 신경 은유 (마음 작용을 물체의 공간적 분포나 운동에 비유한) 공간 은유: 용기container 은유, 이미지image 은유, 일반 공간적 은유 등 (마음 작용을 요소들의 범칙적 상호작용에 비유한) 체계 은유: 기계, 물리학적·수학적 체계, 상징체계, 컴퓨터 은유 등 심리학에서 기타 2개 범주 (은유 연관이 소실된) 관습적 범주: 정신 “건강”, 지적 “성장”, 정신 “상태” 등 (범주화하기 어려운) 특이 idiosyncratic 은유들: 예컨대 인지작용을 호흡작용에 비유</p>
--	--	--

이해하는 개념들의 분포가 단지 마음의 구조와 작동에만 한정되지 않는 것을 발견했고, 또 서구의 근대철학이나 현대철학처럼 마음의 존재론적 본질을 구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 논의도 발달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을 사용하여 인격 혹은 인생을 개발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논의의 전통도 크게 발달한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정신의학처럼 마음의 균형을 상실하여 병리적 차원에서 관찰하고 치유해야 하는 현상을 규정하는 개념들의 존재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아울러 마음의 존재 영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동시에 그 가능성도 열려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또 마음이해의 발상법에 해당하는 뿌리은유도 역시 일정치 않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다만 이 분류에 의하여 속성을 분류하기 어려운 개념들도 다수 있다. 예를 들면 연구진들에 의하여 (마음) 경험의 개념에 짝하는 현상이란 개념을 어디에 배속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꿈’과 같은 개념들은 어디에 배속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제기는 더 제시될 가능성이 있다. 그것은 그만큼 통합마음모형의 구성이나 성취가 쉽지 않은 일임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마음모형이 본 연구단이 수행하는 마음개념비교사전 작업에는 매우 긴요한 것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본다면, 잠정적이긴 하지만 이 분류표가 본 연구단이 마음개념 비교를 위하여 구성한 통합마음모형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마음이해의 다원적 맥락을 보는 동시에 마음이해별 구조적 상이함도 드러낼 수 있으며, 마음이해의 다원적 맥락은 이 통합마음모형에 따른 분류작업과 마음 개념에 대한 비교서술 작업을 통해서 잘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

5. 결론: 작업가설로서 통합 마음모형의 의의

일단 서두에서 지금까지 언급하였듯이 이 통합 마음모형은 본 연구단이 수행하는 과제의 목표, 즉 마음개념을 비교서술하기 위한 용도에서 요청되고 제작된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마음이해에서 언어의 절대성, 맥락의 다원성을 강조하는 연구이다. 그러한 까닭에 아마도 물리적 기초를 중시하고 또 기획된 방법에 의한 실험과 그 실증적 결과를 통해서 뇌와 마음의 상응 구조(심뇌지도)화 연구를 행하는 입장에서는 아마도 뜻만 지같은 연구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미 문화심리학 분야에서 마음이해의 문화적 맥락 의존성이 강조되었고, 과학철학 분야에서는 어느 학문적 문화적 진리든 그것은 구성된 실재임을 밝히는 구성주의 혹은 구성적 실재론의 관점도 일반화되었다. 마음이해는 문화적으로 구성되는 까닭에 문화마다 개발한 언어의 장치가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한 각 마음이해를 구성적 실재로 볼 경우에는 학자들의 언어나 이론이 마음에 관한 진실 구성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을 시사한다. 또 이미 마음에 관한 비교 연구를 해본 경험자들은 간파하였듯이 마음이해나 마음 연구에서의 진리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대에 따라서, 학문에 따라서, 심지어 학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므로 마음에 관한 이해는 늘 유동적이고 그에 관한 진리 역시 변하고 있다. 또 마음의 진리에 접근하는 데에는 입구와 출구가 정해져 있지 않다. 마치 大道無門처럼.

그렇다고 할 때에 어느 일정한 마음 연구를 추종하는 것보다는 마음이해의 다양성을 먼저 섭렵하고 그것을 비교적 시각에서 이해하고 수용함으로써 더 넓고도 깊은 진실의 세계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있을 때 인문학적 연구가 진전한다. 이것이 바로 본 연구의 근본적 태도이다. 특히 인문학에 종사하는 연구자에게는 진리로 통용되는 것에 대한 반성과 그 근

원을 더 깊이 확인해보고 진리의 지평을 확장하려는 태도는 학문의 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통합 마음모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일단 본 연구단의 작업가설로서의 정당성에 관련된 것이지만 나아가서 마음 연구에서 마음에 관한 진리의 다원성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의 정당성도 관련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정당성은 사실 다른 것은 아니며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이 통합마음모형을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이나 기준은 자기준거적이고 자기지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 통합마음모형을 만들기 위하여 동원된 여러 다양한 마음이해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통해서 이 통합마음모형을 구성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마음이해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통합마음모형을 구성할 수 없었던 까닭에 기존의 마음이해들을 종합해서 새로운 통합마음모형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

통합 마음모형이 마음에 관한 비교의 기준으로서 의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마음이해의 상호비교 작업이 설득력을 지니는가 여부와 긴밀하게 연관된다. 이 경우 훈련받은 연구자들의 존재가 중요하다. 훈련이란 통합마음모형을 자신의 분야에 적용하여 보는 훈련이다. 통합마음모형의 적용을 반복 훈련함으로써 마음 개념의 영역과 위상을 정하는 일에 자연스러움을 획득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공동연구자들이 공유함으로써 이 통합마음모형을 마음비교연구의 일반적 기준으로 삼는 일도 가능하리라 본다. 그것이 가능하려면 우선 공동연구자들이 그러한 수준까지 함께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단이 1차 년도부터 매달 두 차례 이상의 모임을 통해서 각자 담당 분야의 마음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공유하고자 노력하였던 과정이 그러한 방법에 상응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작업가설로서의 통합 마음모형이 객관적인 마음개념 비교연구의 기준이 될 것인가 여부는 적어도 두 가지의 사정과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각 분야 마음모형을 다루는 공동연구원들간의 통합 마음모형에 대한 이해의 공유, 둘째는 각 분야 마음모형에서의 개념

분류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과 그에 입각한 피드백이다. 한 가지 더 첨언하면 그러한 피드백을 통해서 수정 보완의 작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사실은 통합 마음모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 통합 마음모형에 입각한 통합 마음 연구가 새로운 차원의 비교 연구의 장을 열 수 있고, 그로써 이 방법이 일반화되는 것은 현재 참여하는 연구자들의 공동 노력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단에는 철학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정신의학과와 인지과학자가 포함되고 나아가서 외부 전문가들로서 인지심리학이나 인지과학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본 토대기초연구는 개념을 비교 연구하는 까닭에 인문학에 기반을 두고 설계된 연구이다. 그리고 본 연구단의 연구는 언어를 분석의 단위로 삼고 언어의 연결 유형과 의미, 속성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아울러 지금까지는 유례가 없는 듯 보이는 통합 마음모형을 공동의 기준으로 삼고 개념들의 연결망을 추출하고 그들의 속성과 의미를 분별하는 작업과 마음모형간의 비교작업까지도 시도한다. 설득력을 갖춘 연구결과를 내놓고 아울러 통합 마음 연구의 좋은 모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마음이해를 담은 해당 원전의 내용들에 대해서 통합 마음모형의 기준을 진지하게 적용하여 왔다. 이것이 사실 통합 마음모형의 가설로서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필수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견문이 짧은 까닭에 위에 소개한 통합 마음모형의 선례를 구하지 못하였다. 만약 이에 관한 선례가 있다면 그것과 비교하여 더 좋은 모형으로의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대해서는 독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몫으로 남겨두고자 한다.

참고문헌

- 최상진, 『한국인의 심리학』, 중앙대학교 출판부, 2000.
- 프란시스코 바렐라 지음, 유권중 박충식 옮김, 『윤리적 노하우』, 갈무리, 2009.
- 패트리셔 처칠랜드 지음 박계윤 옮김, 『뇌과학과 철학: 마음-뇌 통합을 위하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6.
- 알바 노에 지음 김미선 옮김, 『뇌과학의 함정: 인간에 관한 가장 위험한 착각에 대하여』, 갈리온, 2009,
- Gilbert Ryle, *The Concept of Mind: 60 Anniversary Edition*, Routledge, 2009.
- John Searl, *Mind: A Brief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Humberto R. Maturana & Francisco J. Varela, *The Tree of Knowledge: The Biological Roots of Human Understanding*, Revised Edition, Shambhala, Boston & London, 1987.
- Mark Johnson, George Lakoff, *Metaphors We Live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second edition, Chicago and London, 2003.,
- George Lakoff and Mark Johnson, *Philosophy in the Flesh: The Embodied Mind and Its Challenge to the Western Thought*, Basic Books, 1999.
- Alva Noe, 2009, *Out of Our Heads: Why You Are Not Your Brain, and Other Lessons from the Biology of Consciousness*, Hill & Wang New York.
- Bradd Shore, *Culture in Mind*,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Oxford, 1996.
- Evan Thompson, *Mind in Life: Biology, Phenomenology, and the Science of Mind*,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 Massachusetts, London, England, 2007.
- Edited by Francisco Varela and Jonathan Shear, *The View From Within: First-person approaches to the study of Consciousness*, Iprint Academic, 2000.
- Ned Block, Introduction: Remarks on Chauvinism and the Mind-Body Problem, *Consciousness, Function, and Representation, Collected Papers, Volum 1*, The MIT Press, 2007.
- Daniel Hutto and Erik Myin, *Radicalizing Enactivism: Basic Mind without Content*, The MIT Press, 2012.
- Daniel Hutto, *Beyond Physicalis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2000.
- 유권중, 「유교의 마음모형과 마음원리」, 철학탐구 제34집,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3.
- 유권중, 「비교인문학의 방법과 방향-마음학을 통한 학제간 연구」 『철학탐구』 제27집, 중앙철학연구소, 2010.
- Kwon Jong Yoo, The Geography of Asian Mind and Comparative Studies,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arative Studies of Mind “The Geography of Asian Mind”, The Society of Mind Studies & The Institute for Chung-ang Philosophical Studies, 2013.
- Kwon Jong Yoo and Choong Shik Park, Mind Studies with Constructive Realism: Compiling Comparative Dictionary of Mind, presented paper at the Congress 25 Years of Constructive Realism, Organized at Vienna University and Sigmund Freud Privat Universitaet, May 4th-May 5th, 2015.
- 최호영, 마음연구 비교방법론,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워크숍 자료,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2012. 12.

- 최호영, 심리학의 마음모형,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워크숍 자료,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2012. 12.
- 류제동, 불교의 마음모형 발표자료,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워크숍 자료,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2012. 12.
- 조종화, 근대철학의 마음모형,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워크숍 자료,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2012. 12.
- 유권중·박충식, 성리학 심성모델,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워크숍 자료,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2012. 12.
- 김영진, 후설 현상학의 ‘마음’ 모델 및 관련 용어,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워크숍 자료,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2012. 12.
- 이호영, Laozi: Structure of Mind,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워크숍 자료,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2012. 12.
- 김진, 서양고대의 마음개념과 마음모형,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워크숍 자료,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2013. 01.
- 이영의, 인지과학의 마음모형 및 주요 개념,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워크숍 자료,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2013. 01.
- 한창환, 정신의학의 마음 모델,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워크숍 자료, 중앙대토대기초연구단, 2013. 01.

Construction of a Unified Mind Model for Integrated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Mind

Yoo, Kwon Jong (Chung-Ang Univ.)

This study focuses on some philosophical topics that are connected to organization of the unified model of the mind designed in the process of compiling a comparative dictionary of mind concepts that has been performed for three years since 2012 by the Foundational Research Organization of the Institute for Chung-Ang Philosophical Studies. The topics are about the aim of the unified model of the mind, the six categories as its component articles, and the meaning of the model and categories. These topics are at the same time of the discussions in this paper.

The unified model aims at the possibility to compare many and various understandings of the mind at once in one framework. This comparison of all in one may be very rare but must be very necessary tool for our comparison of all the understandings of the mind in a framework. In addition, this unified model not only is necessary for our work, but looks so useful for any other kind of comparative studies of mind in order to secure the standard of the comparison. The organization of the unified model substantially means that it makes the possible comparison among various mind understandings above the incommensurability and the language dependency that are believed to exist among the understandings. Especially the language dependency makes the humanities a necessary and basic approach for all the ways of mind study.